

사회주의개혁

이 회 옥
(교양학부 강사)

1. 문제의 소재와 방법론적 반성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로 전개된 소련의 개혁노선은 중국의 4년만 시간을 거처 동독의 베를린 장벽의 해체와 함께 사회주의권의 도미노 현상을 보이면서 대중적 관심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연구수준의 축적(특히 사회주의의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론)이 깊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에 현상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따라 몇가지 이론적 편향이 나타났다. 이는 냉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현실정당화(현실정당화)를 둘러싸고 논의가 심화·확산되기를 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론적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는 여전히 이렇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적으로 현상사회주의를 인식하는 태도는 크게 두가지 경향, 즉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으로 대별되고, 진보적 입장내에서도 정치노선과 분석노선으로 따라 몇가지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을 자본주의의 복귀운동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 진정한 사회주의로의 복귀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는 입장, 장풍 마르크스-레닌주의로의 이념으로 보는 입장, 자본주의로의 잠정적 복귀가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통과의림자라는 견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사회주의를 인식하는 방법론적 반성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주의(totalitarian)이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모습은 결국 부르조아적 민주주의로의 길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능주의적 접근도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의 핵심(hard core)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적 틀에서 양적 비교를 통해 사회주의의 열악함을 입증하는 수단이론이 중점적으로 사되고 있는 수준을 넘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진보정 내에서 연구수준과도 부족하고 정제된 수준은 아니다. 특히 반혁명운동에 복무하는 운동가들의 사회주의 인식은 과학적 정당성의 구현문제에 결부되어 실천적이고 투쟁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반혁명운동의 시기적 절박성과 사회주의권의 정통부대로 인하여 몇가지 교조주의적 편향을 노정하였다. 주로 독인 유화자 중심의 노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종횡무진했으나 생산력에 대한 우월적 강조, 교묘한 혁명정권의 상대적 중시, 대중과 지도자의 역사적 역할을 현상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과-두면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현대적 사회주의론 인식은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의 스스로 설정한 이념에 근거하여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절박

올바른 시각정립을 위하여

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이것은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하여 사회주의가 단 하나의 모델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태도나 사회주의의 국적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의 사회가 지나고 있는 이념과 정책의 공통성을 부정하는 신역사주의적 악몽도 극복하여 사회주의의 국가의 개별적 혁명투쟁과 사회주의의 건설성에 대한 일반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인식을 이해하는 관건적 과제인 뿐 아니라, 반혁명운동의 전

후의로의 전망을 상실하게 된 것이 라고 전해진다. 특히 실제로 동독에서의 일당독주 독화, 서방과의 자본화합조건의 개선, 헝가리에서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의 포기, 사적소유와 시장경제의 확대, 이에 대응하여 정치적으로 다원주의, 공산당 지도원칙의 포기 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 체코, 폴란드의 개혁자세는 자본주의계급의 동장을 예고하고 이것은 반혁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한 사회주의적 개혁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 기초해 볼때

기는 어렵다. 지금의 잡곡기를 거치면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개혁공산주의 사이의 계급투쟁이 새롭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 전례의 지명적 한계는 현대사회주의가 위기라고 보는 현상은 유용해 보이나 위기의 원인 및 진단, 극복방안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3. 사회주의 강화론의 문제점

그 많을 사회주의론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정한 복원"으로 보는 격조 저지론은 내적인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내적인 몇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함의를 거두고 사회주의사회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소유주의 "관료적 계급"을 분석하고 노동공동체의 근원적인 "계급"을 추출하는 것으로 사회주의의 혁명운동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을 국외의 수많은 지도자만이 기업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가적이라는 데서 민주주의적 접근이론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획기적인 전환은 첫째, 이미 확보된 획기적인 "계급"을 생산수단을 위한 새로운 경제 매개나눔의 창출, 둘째, 경제개혁과 더욱 민영화의 기 계와 제제를 더욱 숙련되고 인간적 대를,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관

있다. 이는 점에서 민중의 무정형성에 기초한 주권주의적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반혁명운동 관점에서 볼 때 개혁주의적 경향을 낳게 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이 견해는 사회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지나치게 현실로 인식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4. 사회주의 후퇴론과 절충적 입장의 제문제

가. 사회주의 후퇴론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상을 편지적으로 해석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당내 보수파를 견제하기 위해 "유익" 사회주의적 급진개혁과 자유주의 개혁을 융성하는 한편 대동맹을 신설해 권력을 독점하고, 민족이기주의적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파괴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전체적인 반제국주의 전선을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나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수정주의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국가 인민의 개혁투쟁을 분쇄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적 기초 그 자체에 칼을 대고 있는 오늘날에 부합한 "제2의 베를린조약"으로 보는 이른바 견해는 반면, 또한 한국사회에의 당면한 반혁명파를 민족민주주의를 통해 그들에게도 "진실개혁"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전열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계급절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소-통주의

사회주의권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4)
1. 최근 사회주의권 변화
 2.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북한사회주의 변혁과정의 올바른 이해
 4. 사회주의 개혁을 보는 편향된 시각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권 개혁의 방향성

방향을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의 관점, 곧 이보전권을 일보후퇴로 평가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내적인 진앙을 가져다 할 수 없다. 동태, 도태는 무엇인가하는 점에 대한 사각각 진앙이 있다. 왜냐하면 개혁을 통해 개혁파본인이 사회를 유성하는 한편 대동맹을 신설해 권력을 독점하고, 민족이기주의적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파괴하고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전체적인 반제국주의 전선을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다 나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수정주의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국가 인민의 개혁투쟁을 분쇄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적 기초 그 자체에 칼을 대고 있는 오늘날에 부합한 "제2의 베를린조약"으로 보는 이른바 견해는 반면, 또한 한국사회에의 당면한 반혁명파를 민족민주주의를 통해 그들에게도 "진실개혁"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전열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계급절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소-통주의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전환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는 견해도 지도적 유화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인구의 혁명정당과 사회주의 건설방향을 역사상 동양의 전통을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못하는 한계로 보아 된다. 소-통주의는 달리 대 중국, 북한, 쿠바의 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데, 소련과 동구의 개혁의 차별성은 어디에서 연구하는가. 중국-소련과는 달리 북한-쿠바는 생산관계의 측면, 즉 사상의식과 정치를 강조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상부기반에서 하부기반을 지도하고 정치사명을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들은 지도를 담당하면서 갖추어야 할 품성을 도 강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변화방향을 사회주의적 개혁노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장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서 압도적인 사회의 소유와 계획경제, 공산주의 지도 아래에서 사회의 소유와 형식적, 계획경제 아래에서의 불평등과 무정형성, 이데올로기의 민주주의의 결핍과 당 및 국가권력 독점의 폐해, 평등주의 아래에서의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해 결방안은 대중노선을 전환하는 것이겠으나 이론과 현실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나. 절충주의 노선

현실사회주의의 사회민주주의적 개혁방향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잠정적 복귀로 파악하고 현실 사회주의의 국적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통과의림자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의 민중의 휴머니즘적 성과와 자본주의권 민중의 자유주의적 진보를 절충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한데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개혁의 딜레마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개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사회주의의 개혁

“소용상자”

사실적 의미는 “복합한 자기 제어적 동력계”에 관한 과학적 이론의 한 분야(인공두뇌학,이러고도 한다).

20세기 전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속에서 발생한 이 체계는 인간생체활동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여 인간의 의식분할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공지능학의 여러가지 기능이 컴퓨터를 기기로 모방되면서 사할 수 있는 기법로 문제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이 인공 두뇌의 근원적 차이점은, 기계는 형식논리학적 구조로 단지 어떤문제를 해결할 하는 후로에 대한 제어장치를 불구한다. 반면에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것은 인간만이 갖는 창조적 능력이며, 역사적 생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그리스어인 키베레티키(Kybernetike)에서 유래한 이말의 사전적 의미는 “복합한 자기 제어적 동력계”에 관한 과학적 이론의 한 분야(인공두뇌학,이러고도 한다).

20세기 전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속에서 발생한 이 체계는 인간생체활동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여 인간의 의식분할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공지능학의 여러가지 기능이 컴퓨터를 기기로 모방되면서 사할 수 있는 기법로 문제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이 인공 두뇌의 근원적 차이점은, 기계는 형식논리학적 구조로 단지 어떤문제를 해결할 하는 후로에 대한 제어장치를 불구한다. 반면에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것은 인간만이 갖는 창조적 능력이며, 역사적 생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대학신문 광고질서 회복을 위하여

다섯. 대학신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인가?

“자비로운 자선가? 정신나간 투기꾼?”



대학신문 기자들에게 올바른 광고질서회복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따라서 올바른 광고대행사를 택할 수 있는 건전한 행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악덕광고대행사들은 광고 매체의 공정한 수준을 무시한 엄청난 액수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거없이 엄청난 액수의 매체로, 그리고 타협없는 장악군의 유혹... 이런 광고대행사가 학교 학생을 위한 자비로운 자선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저 어딘가 정신나간 투기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잡아나가는 광고질서회복을 깨닫고 자신들의 새로운 투기판을 만들기 위한 건전한, 계획적인 방해자일 뿐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대학신문 광고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학교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 광고질서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 추방 공동대책위원회

필리핀 45년, 가사 본 민족종교적 집합이 힘든 '도하'의 조국 북한을 찾았던 한 재미북파의 생생한 회고록이 있다.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던 김경남의 행적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담겨 이북은 그간 해군인 반공노리남 교육받은 대학생에게 객관적 선택으로써 북한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물지침(공동체) —

우리 사람이란 이름으로 만났는데 감격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로의 승화는 사람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이제 대학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의 방법을 알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복 지음(형성사) —

김옥으로부터의 사회공인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 신명복씨의 옥중수감생활은 어떤. 지난 두세대의 억압적인 이념의 시대를 살았던 진정한 사상인의 자유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신명복 지음(형성사) —

사람으로 대인 성취적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직인 제자와의 아름다운 생활을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전교 1학년 90학년 새내기들에게 진정한 참교육의 의미와 무엇보다도 인간애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성식 지음(전구) —

단지 그대가 어찌하는 이유만으로 마귀수호자의 '악한 의지'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여성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과 여성생활을 위해 힘써야 하는 주춧돌을 담고 있다. —이재복 지음(사대평론) —

사이공의 환상 제3세대 민족해방의 선배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 여학생 운동가의 행로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 —구본만 지음(전구) —

공민(위)는 으로서 좋은책을 선정 광고지면을 통해 학생들이 만날 수 있도록 새로이 '도사나비'를 마련한다.

